

심은 대로 거두리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대장 마귀를 물리친 하나님이 쫓겨 마귀를 제거하는 과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공기를 맑히고 물을 맑히는 수고를 하시면서 고질 코로나19를 물리쳤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이제 본부제단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합창단이 다시 활동하게 되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합창이 은혜롭고 감동적이다. 그리고 구세주님의 찬송 인도와 예배 말씀이 마치고 합창단의 합창에 이어 관현악단의 연주하는 성도들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맞춰 이제 제단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었다. 본부제단 여정회장과 전국연합 여정회장의 송신수범과 이에 합심한 여정년들이 제단 청소와 미화 작업에 수 십년 동안 꾸준히 힘써 왔기에 이제 본부제단은 향기나는 제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한미음이 되어 희생과 봉사로 주님의 뜻을 받들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는 우리 제단의 교리를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격언대로 영생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제단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열심을 낼 때, 주님께서 분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노아 방주와 같은 승리제단으로 이끌어 채워주실 것이다. 격암유록에는 정도령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려고 반월선이 되는 구원 방주를 띄운다고 예언하고 있다.

코로나19 고질보다 앞서 발생한 사스 고질에 대해서 우리 성도제단 식구들만이 생생히 기억하는 사실을 언급한다면, 주님께서 공언하신 "구세주가 한국 땅에 있는 고로 한국에는 사스 고질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질이 너무 빨리 왔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 강력한 고질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에는 한반도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하신 점이다. "열 가구 중 아홉 가구가 죽고 한 가구만 산다."라는 격암유록의 예언이 두렵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자유율법을 지켜야"

자유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자유율법을 지키는 데에 가장 원수가 되는 것은 바로 나라의 주제의식이다. 나라는 의식이 자꾸 넘어뜨려 자유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와 내가 없는, 인간 전체가 한 사람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세상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되겠는지 상상해보라. 너와 내가 없는 세상은 국경이 필요 없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견상자세, 플랭크 자세~

오늘은 상하체를 강화하여 전신 피로 해소, 고관절 유연성을 높이고 유도하여 균형감각과 집중력 도움, 복부 다이어트, 다리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인 견상자세와 플랭크 자세를 해 보실까요?

주의 : 손목 발목 등 동작 실시 전후로 풀어준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몸통이 가라

않지 않도록 한다.

① 견상자세 1: 앞드린 상태에서 어깨너비로 손발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높게 들어 올리며 팔다리를 쭉 펴준다. 10초 유지. 5회.

② 견상자세 2: 발뒤꿈치를 들어 발가락으로 유지하고 무릎과 엉덩이를 위로 끌어 올린다. 10초 유지. 5회.

③ 플랭크 자세 3: 앞드린 상태에서 허벅지와 상체를 들어 올린다. 팔꿈치와 무릎은 펴주고 손바닥과 발가락으로만 유지한다.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주어 몸통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10초 유지. 5회.

④ 플랭크 자세 4: 3번 자세에서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린다. 머리끝에서 발뒤꿈치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다. 10초 유지. 5회.*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감로 해인은 사람 몸을 죽지 않게 변화시키리라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27회

石井水 석정수

日出山天井之水 일출산천정지수
掃之腥塵天神劍 소지성진천신검
一揮光線滅魔障暗追天氣光彩電
일휘광선멸마장암추천기광채전
天命歸眞能何將 천명귀진능하장
利在石井生命線 이재성정생명선
四肢內裏心泉水 사지내리심천수



해 돋는 동방 한국에서 하늘의 우물물인 생명수가 솟아나 온 세상의 더러운 죄악을 씻고, 천신검을 한 번 휘두르니 번쩍이는 살바 광선에 마귀들이 박멸 소탕되고 어둠을 몰아내는 하늘 기운은 번개가 번쩍이는 듯하다. 천명(天命)이 진인 정도령에게 돌아오니 장차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목숨을 보전 하려면 이로운 석정수에 있으니 곧 생명수요 사지(팔다리)와 몸속 깊이 흐르는 심천수일세.

世人事轉倏然 세인사사천연
祈天禱神開心門 기천도신개심문
水源長遠天農田 수원장원천농전
農土土辰斗七斗落 농토진촌칠두락
牛性在野牛鳴聲 우성재야우명성
人生秋收審判日 인생추수심판일
海印役事能不無 해인역사능부무
脫劫重生變化身 탈겁중생변화신
天生有姓鄭道令 천생유성정도령
世間再生鄭氏王 세간재생정씨왕
一字縱橫木人姓 일자횡행목인성
世人心閉永不覺 세인심폐영불각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슬프고 처참한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음 문을 열어보세. 생명수의 근원이 깊고 먼 하늘 농사의 밭은 북두칠성

이 짓는 참 생명의 농사이네. 우성 하나님(정도령)이 들에 계시니 소 울음소리(사람 몸이 죽지 않는 진리의 말씀)가 들리리라. 이때가 인생을 추수하는 심판의 때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해인의 역사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탈겁 중생하여 사람 몸을 죽지 않게 변화시키리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 때에는 정도령이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정씨 왕이 아니라, 한 일(-)자를 중형으로 한 성씨(姓)로 (갑)나무의 사람으로 오셨으나 세상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으니 영영 깨닫지 못하는구나.

生初之樂(-) 생초지락

三鳥類鳴急來聲 삼조빈명급래성
渾迷精神惶忽覺 혼미정신황혹각
數數出聲雀之鳥 사수출성주작지조
無時鳴之開東 무시명지개동
夜去日來促春光 야거일래촉춘광
中入此時人覺 중입차시인인각
仙源種桃何處地 선원종도하처지
多會山中弓乙間 다회선중궁을간
寶血伸冤四海流 보혈신원사해류
心覺訪道皆生時 심각방도개생시
罪惡爭土相害門 죄악쟁토상해문
上帝之子斗牛星 상제자자두우성

닭이 세 번 자주 급하게 우는 소리에

투쟁으로 서로를 해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두우성(斗牛星=북두칠성=정도령)은 도를 찾는 사람들 모두를 영생하게 하시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깨달아야 하리라.

西洋結冤離去後 서양결원리거후
登高望遠察世間 등고망원찰세간
二十世今時常 이십세후금시당
東方出現結冤解 동방출현결원해
腥塵榨地世冤恨 성진졸지세원한
一點無濁無病 일점무탁무병
永無惡神世界 영무악신세계
亞亞佛 彌勒王 불야종불 미륵왕
人間解冤此今日 인간해원차금일

서양에서 원을 맺고 떠난 후 하늘 높이 올라 천하를 두루 살피다가 20세기 후반 지금 정도령으로 동방 한국에 출현하여 맺힌 원을 풀게 되느니라. 더러운 죄악의 티끌을 털어 원한을 풀어주고 한 점도 탁한 것이 없으며 병(病)도 없고 영원토록 악이 없는 신선의 세계를 이룩하느니라.

불야종불(亞亞佛)인 천하에 으뜸가는 부처님(정도령, 심승인)이 왕중의 왕 미륵왕으로서 우주 천지를 다스리시니 인간의 한을 풀어주는 때가 이 때로다.*

박영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에 대한 구세주 말씀

백만제단에서 예배를 보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므로 영광이다. 백만제단에 들어와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영광이다. 그 영광을 모른다면 바보다. 영원무궁토록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식구를 전도하면 몸이 아프고 무겁고 눈이 아플 때가 많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고 나가는 영적인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도 힘들고 무겁고 아플진대 수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엄청난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그 고생을 사임으로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수천, 수만 번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그 죄를 벗을 수 있다. 참는 인내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다. 사임으로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참는 인내심을 키워서 마지막 역사를 맡긴 것이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초창기에 하루만 단상에 서도 어지러워서 내려갈 수 없었다. 어지러워서 갈지(之)자로 걸으면서 내려갔다. 단상에 서고 나면 매일 같이 피를 토했다. 그런 고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사가(私家)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매일 피를 토하는 것을 보면 가족이 놀라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여하는 역사를 그렇게 해 왔다. 이 사람의 영이 점점 자리면서 피를 토하는 것이 이를 사함에

한 번씩 피를 토하는 생활이 영이 강해지면서 그 횟수가 줄어들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다. 굉장한 수준의 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다.

여러분들을 처음에는 육적인 엄마가 낳았지만, 지금은 영적인 엄마가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담당하면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열 번, 백 번, 천 번 잘못해도 담당해서 죄를 씻어준다. 정말 대단한 엄마다.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오늘 날 여러분들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해서 오늘날에 이른 고로 엄마의 그 노고를 덜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명 한 명 전도해야 그 영이 자란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영이 자라지 않는다. 전도를 하면 죄를 담당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소(小)지만 담당하게 하고 대(大)지는 영적인 엄마가 담당한다.

전도를 하려는 것은 연단을 시켜서, 날로 온전한 심령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다. 온전한 심령이 될 때까지 조금씩 짐을 지우지만, 감당을 못하면 그것을 뺏아서 대신 짊어진다. 조금 지워서 담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점점 죄를 담당하는 양이 많아지도록 연단시킨다.

죄를 많이 담당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넘어지려야 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의 심하러야 의심할 수가 없는 이긴자 구세주로 완성된다. 그렇게 많이 담당을 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면 깨닫게 된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왕)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673-4635
- 평택제단 : (010)7516-1591
- 부산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55)327-2072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정읍제단 : (010)8628-2758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橫濱祭壇 : (045)489-9343
- 神戸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大阪祭壇 : (06)6451-3914
-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